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반동성

정 광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경제위기를 막을수 없으며 그 파국적후과를 면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전집》 제57권 83페이지)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공황, 실업, 인플레이, 생산의 침체 등과 같은 경제위기와 심각한 사회경제적모순들이 날로 첨예화되어가고있다.

부르조아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모순들과 위기의 근원이 자본주의제도 자체에 있다는것을 부인하고 그 본질적원인을 외곡하면서 마치도 그것을 없앨수 있는 듯이 떠벌이고있으며 저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각종 어용리론들을 조작류포시키고 있다.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케인즈의 《조절적자본주의론》에 기초한 《개입주의》적경제정책의 집행결과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그 원인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최신변종인 현대《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한 류파로 출현하였다.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 실업과 공황을 비롯한 위기가 정책결정, 립법, 투표와 같은 정부의 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헌법에 의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국가의 간섭범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주의에 고유한 자유경쟁질서를 수립하고 자본주의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리론이다.

《헌법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대표자

는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인 뷰캐넌이며 그의 대표적인 책은 《자유의 제한》(1975), 《헌법적계약에서 자유》(1977), 《자유, 시장, 국가》(1986), 《헌법적정치경제학》(1987) 등이 있다.

뷰캐넌은 무엇보다먼저 정치경제학의 대상과 그 연구방법에 대한 반동적인 궤변을 조작하였다.

뷰캐넌은 우선 《헌법적정치경제학》이라 는것을 내놓고 정치경제학의 대상을 인간의 사회적행동을 규정하는 제도, 관습, 법 등을 포함하는 헌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헌법적정치경제학〉은 정부의 권한과 기능 및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회의 기본규칙으로서의 헌법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경제학이기때문에 〈헌법적정치경제학〉의 분석은 마땅히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하에서 일어난 위기들이 정치인과 관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발생한것으로 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제약하는 헌법에 대한 분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합리화해 나섰다.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에서도 원리적문제를 취급하는 과학으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경제법칙을 연구하며 또 그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말하여 해당 사회의 모든 경제부문,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을 연구하며 또 해당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을 연구한다. 때문에 정치경제학의 대상을 헌법이라고 한 뷰캐넌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이것은 정치경제학을 다른 사회학과 혼탕시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대독점기업의 착취와 착탈을 가리우며 제국주의국가가 겪는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듯이 환상을 조성하는 반동적인 꾀변이다.

뷰캐넌은 또한 정치경제학의 연구방법이 개인리기주의에 의한 경제문제의 분석방법이라고 떠벌였다.

그는 리기주의는 사람의 본능이라고 한 아담 스미스와 같이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그를 목표로 행동하는 개인으로서의 《경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모든 사회경제현상들과 범주들을 해석하였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살겠다는 리기주의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착탈하여 저들의 배를 불리우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며 부르쥬아사상이다.

뷰캐넌의 방법은 리기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질서, 부르쥬아적인간을 절대화하고 찬양하는 그릇된것이다. 그가 말한 《경제인》이란 오직 자기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리기적인 개인 즉 부르쥬아지이다. 이로부터 그는 매 개인이 자기의 개인적이익만을 추구하는것이 곧 사회적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뷰캐넌의 이러한 견해와 방법은 부르쥬아개인리기주의를 적극 찬양하며 자본가들의 리윤추구를 합리화하는 반동적인것이다.

뷰캐넌은 다음으로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에 대한 리론을 내놓았다.

뷰캐넌은 우선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의 발생원인에 대한 외곡된 리론을 내놓았다.

그는 통화팽창이나 인플레이가 발생하게 되는것을 통화발행자와 정치인들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통화당국자가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에 의하여 임명되기때문에 이들의 의사와 어긋나는 긴축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특히 긴축정책의 실시후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근로대중의 처지의 악화, 그로 인한 여론과 언론의 공격으로 해

서 이것을 실시할수 없기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리유로 해서 통화발행자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된 정부의 국채를 인수하게 되고 그 결과 통화팽창이 발생하며 이것이 인플레이를 낳게 된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관리통화제도에서 케인즈의 《개입주의》적통화정책으로 하여 재정적자→통화발행자의 국채인수→통화팽창→인플레이라는 악순환과정이 반복된다는것이다.

뷰캐넌은 또한 인플레이가 초래하는 후과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것을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개입주의》적경제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외곡된 리론을 내놓았다.

그는 《모든 상품의 가격상승률을 정확히 예측할수 있는 인플레이는 경제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으나 현실의 인플레이는 예측할수 없기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면서 인플레이가 초래하는 후과는 첫째로, 생산적투자의 수익률이 인플레이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활동의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생산적투자가 줄어드는것이고 둘째는, 인플레이가 정확하고 계획적인 합리적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것이며 셋째는, 인플레이가 소비를 장려하는 반면에 저축과 투자를 감소시키는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의 후과발생은 가격과 임금정책을 비롯하여 케인즈의 《조절적자본주의론》에 기초한 《개입주의》적경제정책의 집행결과 시장가격기구의 자동적조절기능을 마비시켰기때문이라고 하였다.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에 대한 뷰캐넌의 주장은 통화팽창과 인플레이발생의 진정한 근원을 외곡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통화팽창과 인플레이를 비롯하여 자본주의경제가 항시적으로 안고있는 모순과 위기들은 그 어떤 경제정책이나 집행자에 의하여 발생하는것도 있지만 그 진정한 근원은 자본주의사회가 안고있는 기본모순과

침략적, 약탈적본성에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이러한 모순과 위기들을 없앨수 없다.

통화팽창과 인플레이발생의 원인을 외국하는 뷰캐넨의 리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모순들을 그 어떤 경제정책이나 집행자에 의하여 바로잡을수 있는 듯이 환상을 조성하여 더욱더 고조되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로막으며 무너져가는 저들의 통치체제를 유지해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인플레이의 후파에 대한 뷰캐넨의 리론은 자연발생성과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도 생산과 비생산분야의 균형보장문제, 계획적인 경제활동과 저축과 소비의 균형문제가 실현될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비과학적인 리론이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절대로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에 대한 합리적균형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경제활동의 계획화는 더욱더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소비와 저축에 관한 문제에서도 이것은 자본가들을 비롯한 부르조아계급에 해당되는것이지 임금을 가지고 생계나 겨우 유지해나가는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의의가 없는 일인것이다.

뷰캐넨은 다음으로 자본주의경제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의 극복방도에 관한 리론을 내놓았다.

뷰캐넨은 우선 위기와 모순의 극복방도를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제한된 간섭과 시장경제질서의 결합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자유경쟁질서를 찬양하는 국가기능을 《생산국가의 기능》, 개입주의를 찬양하는 국가기능을 《보호국가의 기능》이라고 분류하고 이 두 부류의 결합함을 지적하면서 《완전한 시장도 완전한 정부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것은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이므로 이 두개를 적절히 배

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제한된 간섭》과 시장경제질서의 《결합》에 대한 뷰캐넨의 리론은 비과학적이며 부당한 리론이다. 현대제국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독점자본의 마수는 경제생활의 구체적인 세부는 물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뻗치고있다. 그 무슨 자유적경쟁질서라는것은 독점적고물리운을 추구하는 독점자본가가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하는데 필요한것이지 절대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것이 아니다. 때문에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제국주의에서는 절대로 독점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자유적인 경제질서가 수립될수 없으며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그들의 간섭범위는 더욱더 넓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제한된 간섭》에 대하여 설교하는것은 독점자본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배격을 묵살하고 저들의 정책에 그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암시하여 무너져가는 통치체제를 유지해보려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뷰캐넨은 또한 위기와 모순의 극복방도를 제국주의국가의 재정금융정책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현대제국주의에서 하나의 골치거리로 되어있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금융정책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균형재정을 보장하고 통화증가률을 실질경제장성률과 일치시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최대한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재정금융정책의 원칙을 확립해야 자본주의가 위기로부터 구원될수 있다고 하였다.

제국주의국가들에서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국가들이 지배주의적, 패권주

의적야망으로부터 군사비지출을 대대적으로 늘이고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국가의 예산지출에서 절대적인것은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군사비지출과 저들의 통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데 돌려진다. 일명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은 매우 적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은 2010회계년도에만도 국방비로 5 340억US\$를 탕진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2009회계년도 국방예산보다도 4%정도 늘어난것으로서 군사력에 있어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25개 나라들의 국방예산을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미제의 계속적인 군사비증강책동에 의하여 오늘 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있

는데 프랑스는 657억US\$, 영국은 653억 US\$, 도이칠란드는 468억US\$, 일본은 463억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에 지출하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국가와 그 대변인들은 저들의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마치도 절대다수 근로대중을 위한 《사회적시책》의 결과인듯이 오도하고있으며 저들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국가예산의 반동적본질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제국주의국가의 재정적자는 없어질수 없으며 제국주의국가는 그로 인한 파국적위기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